



다윗 이야기

⑬ 므비보셋 이야기

나 레 이 셴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사모했던 다윗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. 그리고 다윗왕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.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.

다 윳 아.. 내 그리운 친구 요나단이 이럴 때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..

요 나 단 내 친구 다윗아,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 것을 안다. 그러니 꼭 나에게 약속해다오.

다 윳 그래 무엇이든 말해보게, 친구.

요 나 단 다윗 자네가 왕이 되면,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게. 내가 없더라도 내 후손들을 잊지 말게나.

다 윳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을 지키실 거야. 내가 꼭 약속할게.

다 윳 여봐라, 요나단의 후손 중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?

시 바 예, 요나단의 아들 한명이 살아 있습니다. 그런데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자입니다.

다 윳 그래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 어서 데리고 오너라. 그를 만나봐야겠다.

시 바 예, 분부대로 하겠습니다.

(손이 보이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) 똑똑똑!

(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) 철컹! 깉~~~~

므 비 보 셋 누.. 누....누구십니까?

전 령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시지요?

므 비 보 셋 예... 제가 므비보셋입니다만....

전 령 다윗왕께서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. 어서 떠날 채비를 하십시오.

므 비 보 셋 네!! 뭐라고요? 다윗왕이 저를 찾는다고요? 아.. 드디어 나도 죽게 되는구나... 마지막 남은 나를 찾았구나... 흑흑흑... 우리 가족은 이렇게 끝나는구나.. 흑흑흑...



- 다 윗 네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냐?
- 므 비 보 셋 (말을 더듬으며) 예...에에...예 제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입니다.
- 다 윗 그래, 지금까지 잘 살아주었구나.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
생각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니 전혀 겁낼 것 없단다.
- 다 윗 이제부터 너의 할아버지 사울왕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토지를
너에게 돌려주겠다.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이곳 예루살렘 왕궁,
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도록 하자꾸나.
- 므 비 보 셋 네?! 아니... 왕이시여, 이 종이 무엇이기에 몰락한 가문의
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? 흑흑흑
- 다 윗 여봐라 이제부터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땅은 므비보셋의 것이며,
므비보셋은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내 음식을 먹으며
나의 아들 같이 될 것이다.

.....

나 레 이 셴 다윗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후손이요,
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 므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
예루살렘에서 다윗왕과 함께 살았습니다.
마치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셔서 늘 은총을
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?